

# 한국 중고령 남성의 은퇴 경험과 은퇴 후 삶의 질

Korean Middle-Aged and Elderly Men's Experiences of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박사수료 김 미 영\*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강 사 손 서 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 수 박 미 석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h.D Candidate* Miyoung Kim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Seohee Son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Mee Sok Park

##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 of retirement and how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differs depending on the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and elderly Korean men and the experience of retirement. Data were drawn from the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e sample consisted of 278 retired middle-aged and elderly Korean men aged between 45 and 64. The results showed that middle-aged and elderly Korean retirees' reasons for retirement differed depending on their health satisfaction.

\* 주저자: 김미영 (snow1205@gmail.com)

\*\* 교신저자: 손서희 (seoheeson1@gmail.com)

In addition, their retirement satisfaction varied according to their education, health satisfaction, economic satisfaction, and reasons for retirement. Regarding their life satisfaction, it was predicted by their age and satisfaction with health status, economic situation, marriage, and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Key Words : 은퇴경험(experience of retirement), 은퇴 동기(reasons for retirement), 은퇴만족도(retirement satisfaction), 은퇴 후 삶의 질(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 I. 서론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global financial crisis)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전이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경제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고용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일자리 특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당수의 경제활동 인구는 많은 위기와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Pinquart & Schindler, 2007).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64세 이하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감소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폴리뉴스, 2010. 10. 1). 중고령자의 이러한 고용상태 불안정성은 10여 년 전 국제 통화 기금(IMF)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위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산업 구조의 변화, 고령화, 복지 체계 미비 등의 사회구조 특성과 맥을 같이 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0세를 전후로 직장에서 조기 퇴직한 시점에서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만 60세까지의 가장 힘든 10년을 ‘마(魔)의 10년’이라고 일컫고 있으며(조

선일보, 2010. 9. 3), ‘베이비붐 세대 2010년 쇼크’라고 하여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인구 중 311만명 정도가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은퇴자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조선일보, 2010. 1. 8).

특히 전통적으로 일 영역에서 가족 생계를 책임져 온 남성의 고용시장에서의 지위변화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중년 남성들은 사회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산업화의 중심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주역들이었고, 가정 내에서는 경제적 부양자로서 그들의 직업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김태현·김양호, 2003). 그러나 경제 불황에 의해 직업 역할을 본인의 숙명처럼 생각해 온 중년 남성들의 근로 종료(career ending)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한국 남성 대부분은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어떠한 준거틀이나 걱정된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성미애·옥선화, 2004),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로의 문화지체현상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수뿐 아니라 점점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의해 중고령자의 은퇴 후 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의 은퇴 경험과 은퇴 후의 삶의 질은 은퇴자 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사회보장비용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령자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본과 미국 역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를 경험하였지만,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의 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진행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늦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들의 은퇴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조선일보, 2010. 1. 8).

은퇴를 보는 관점으로는 은퇴를 역할상실 등의 위기로 보는 관점(Gallo, Bradly, Dubin, & Jones, 2006)과 생애주기에서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Atchley, 1989; Schmidt & Lee, 2008)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위기의 관점에서는 소득 감소, 은퇴에 대한 준비 부족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과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은퇴를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생활 사건으로 보는(신현구, 2007; Gall, Evans, & Howard, 1997) 반면, 생애주기 관점에서는 은퇴를 생애 전이로 접근하여 기타 다양한 생활 영역과의 연계성을 강조한다(한경혜, 2008).

따라서 한국 중고령 남성이 자신의 은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은퇴에 대한 만족 정도와 은퇴 후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은퇴로의 전이를 준비하는 중고령자와 은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고령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중고령 남성들과 그들 가족의 은퇴 후 생활 적응을 돕는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령자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 남성 은퇴자의 은퇴경험과 은퇴 후 삶

의 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고령 남성들의 은퇴 동기 및 은퇴 만족도와 은퇴 후 삶의 질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 중고령 남성들의 은퇴경험(은퇴 동기와 은퇴 만족도)과 관련된 변수는 무엇인가?

셋째, 한국 중고령 남성들의 은퇴 후 삶의 질과 관련된 변수는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중고령 남성의 은퇴

중고령자는 일반적으로 45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의 중년과 65세 미만의 고령을 합친 개념으로 중고령층, 준고령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김기홍·임언·이정표, 2008). 이러한 중고령 세대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경제적 고도성장과 경제·사회적 자원의 확대를 경험하였다(안기선, 2011). 특히 중고령 세대 남성들은 일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일 역할은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고, 그 동안 일 특성과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은 다양한 일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조원지·한경혜, 2001). 김태현·김양호(2003)의 연구에서는 직업과 자녀가 있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년남성의 남성의식, 직장생활, 가족생활 등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왔는데, 그 중 직장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은 여전히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에서 정체감을 찾을 때 가장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중년기 남성에게 직업은 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에서의 은퇴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생활사건으로, 여러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은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일반적으로 은퇴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 경제활동 참여여부,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 주요 직업 중단, 연금수급여부, 일정 연령 도달 등을 기준으로 정의된다(김지경, 2004; 한희자·강은실, 2001).

은퇴자의 은퇴전이 경험과 생활만족도를 젠더 관점으로 접근한 성미애·최새은(2010)의 연구는 남성과 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젠더에 따른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즉, 은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사건이며 남성의 경우 직장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져야 한다는 압력을 여성보다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Burr(1973)에 의하면 역할의 전환(transition)이 어려울수록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다(Szinovacz & Davey, 2005에서 재인용). 즉, 개인이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이 본인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은 심리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본인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성에게 은퇴는 중요한 생활사건이며, 은퇴 후 생활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2. 중고령 남성의 은퇴 후 삶의 질

한국 경제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중년 남성들은 전체 기업의 약 96%가 정년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실제 대상자의 12%만이 평균 54세로 정년퇴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조기 퇴직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의 경기 불황은 조기 퇴직이라는 압박감을 더욱 강화시켰고, 이를 통해 남성 가장들의 가족부양 능력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가족 안에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안병철·임인숙·정기선·이장원, 2001). 또한 사회적으로도 중년기 남성들의 경력 종료(career ending) 시기가 빨라지면서 전통적인 은퇴의 의미를 적용하기 힘든 조기퇴직자들이 많아졌지만, 이른 은퇴임에도 불구하고, 구직 의사가 없는 완전은퇴를 선택한 중고령 남성들의 삶의 질 수준은 그들의 생태 체계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년기 남성의 이른 은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중고령 남성들의 근로 중단 후 생활만족도, 심리적 복지감 등과 같은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및 가족 특성, 사회적 관계 특성, 혹은 은퇴 관련 특성 등과 중고령 남성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 1) 개인 및 가족 관련 변수

우선 중년기 남성의 은퇴 후 삶의 질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은퇴자들의 연령, 건강수준, 교육수준, 경제 상태, 은퇴 전 근로형태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이나 은퇴시기, 개인의 성격 등이 은퇴 이후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김지경, 2005; 배문조·전귀연, 2004; 성미애·옥선화, 2002).

연령에 따라 삶의 기회가 달라지는 연령 층화된 사회에서 은퇴자의 연령은 상황을 지각할 때 객관적인 지표가 되며, 그러한 지각에 따라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성미애·옥선화, 2002). 신체적 건강 또한 은

퇴 후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은퇴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애·최새은, 2010; 지연경·조병은, 1991). 은퇴자의 교육수준별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경우,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타났는데, 교육수준과 생활만족간의 부적 관계(성미애, 1999)를 보고하거나 관계가 없다(성미애·최새은, 2010)고 한 연구가 있었다.

다음으로 남성들이 은퇴함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적인 임금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남성 은퇴자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가정경제만족도는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한 수입은 은퇴 후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인, 2007; 배문조·권귀연, 2004; 신화용·조병은, 2001). 마지막으로 은퇴 전 근로형태 역시 일 영역에서 본인의 정체감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 중고령 남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경혜(2008)의 연구에서는 전문/관리직,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자영업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젠더 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남성의 은퇴 시 직종으로는 사무기술직과 자영업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은퇴 전 직업형태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은퇴 전 직업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종을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전문직, 자영업 등으로 구분하여 중년남성의 역할의식 및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직종이 큰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애·최새은, 2010; 김태현·김양호, 2003). 그러나 소득이 높고 고학력일수록 강한 남성의식을 보여, 중년기 남성에게 직업 변수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주로 결혼만족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빈도, 대화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및 지지 등이 은퇴 후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한

혜경, 2002; 이종희, 2001). 또한 취학자녀수와 미혼자녀수는 교육 및 결혼관련 비용에 투자되어야 하는 재정적 자원의 크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권문일, 1996; 성미애·옥선화, 2004; 성미애·최새은, 2010).

## 2) 사회적 관계 관련 변수

사회적 관계 특성이 은퇴 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은퇴자의 사회적응도가 높았으며,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은퇴 후 생활에 만족을 보인다고 하였다(성미애, 1999; 이종희, 2001). 이와 같이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위기의 가족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Schaefer와 그의 동료들(1981)에 의한 물질적 지지의 중요성, Boss(1988)에 의한 정보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에서 이미 알려진 바 있다(조성희, 1999에서 재인용). 신준섭·이영분(199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은퇴 관련 변수

마지막으로 은퇴자의 은퇴 관련 특성 변수의 경우 은퇴동기, 은퇴 만족도 등이 은퇴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은퇴동기는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에 따라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준비와 은퇴 후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zinovacz & Davey, 2005). 특히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할 경우 역할 상실감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성미애·옥선화 2004). 은퇴의 자발성 여부를 젠더별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비자발적인 근로중단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한경혜, 2008). 반면 은퇴의 자발성 여부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성미애·최새은, 2010).

그리고 Bradbury, Cohan, & Karney(1998)는 은퇴 만족도는 부부 관계, 혼인 기간 등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Szinovacz & Davey(2005)는 배우자의 고용상태와 은퇴 전 의 사결정구조가 은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가 고용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은퇴 의사결정에 상대방이 많이 개입할수록 은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배우자와의 관계나 특성이 은퇴 만족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은퇴 후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은퇴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이 그들의 은퇴 후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고령 남성의 개인 및 가족, 사회적 관계, 은퇴 관련 특성이 그들의 은퇴 후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해 한국고령자패널(KLoSA) 2006년도 1차 자료를 사용하여, 45세 이상 64세 이하의 남성 퇴직자 중 완전은퇴를 선택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중고령자 응답자만을 선별하여 최종 278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한국 중고령 남성과 은퇴라는 생활사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직의사가 없는 완전 은퇴를 선택한 중고령자만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고령자고용촉진법(2010년 시행)에 따르면 정부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등 퇴직

이후의 재고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통계에서는 고령자 연령 범위를 55세에서 64세로 규정하면서, 고령자의 고용 비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5세 미만의 고령 남성은 사회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연령으로 고려되므로 한국고령자패널(KLoSA)의 최소 연령인 45세에서부터 64세 이하의 남성 중 일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은퇴 후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남성 중고령자의 은퇴 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변수로 패널 자료에 제시된 삶의 질 단일 문항으로 정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삶의 만족도 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의 간격을 두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 후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개인 및 가족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들의 은퇴 후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개인 변수로 남성 중고령 은퇴자의 연령, 교육 수준, 건강만족도, 경제상태만족도, 은퇴 전 고용형태 등을 살펴보았다. 남성 중고령자의 건강만족도와 경제상태만족도는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와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각각 측정하였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은퇴 전 고용형태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직업의 경제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상용직 임

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중고령 남성 은퇴자의 은퇴 후 삶의 질에 관련된다는 가족관련 변수로는 배우자와의 결혼만족도, 자녀 수, 미혼 자녀 여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결혼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역시 0점에서 100점의 응답 범위를 가진 단일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중고령자에게 미혼 자녀 여부는 혼인한 적 없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미혼자녀 없음 = '0', 미혼자녀 있음 = '1').

### 3) 사회적 관계 변수

전체 사회활동 참여 개수 측정을 위해서 조사 대상자의 친목모임, 동창회/향우회, 종교모임, 여가/문화/스포츠관련 모임,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 등 총 6가지 모임에 참여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 여섯 항목 중에서 이에 참여한 경우는 1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이분화하여 총점을 살펴보았다(범위 0 - 6).

### 4) 은퇴 관련 변수

중고령 남성의 은퇴 관련 변수에는 은퇴 동기와 은퇴만족도를 포함하였다. 은퇴 동기는 은퇴의 자발성 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묻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 하였던 일자리는 어떻게 그만두셨습니까?”라는 질문을 근거로 하여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비자발적 은퇴로, “원해서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자발적 은퇴로 간주하였다(자발적 은퇴 = '0', 비자발적 은퇴 = '1'). 은퇴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질문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은퇴 동기에 따른 응답자의 인식에 관련된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은퇴만족도와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와 분산팽창지수(VIF)수를 검토하였다. 특히 은퇴만족도와 삶의 질은 낮은 상관계수를 보여 서로 다른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남성 중고령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중고령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9.40세로, 60세에서 64세 사이가 약 56%로 가장 많았으며, 55세에서 59세가 32%, 50세에서 54세가 9.4%, 45세에서 49세가 2.5%의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3.4%, 대학교 졸업 이상이 21.9%, 중학교 졸업이 18.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자녀수는 2.56명으로, 2~3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약 79%로 가장 많았고, 4명 이상이 약 13%, 1명 이하가 약 8%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25.5%가 미혼 자녀를 두고 있었다. 조사대상 남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수준을 친목모임, 동창회/향우회, 종교모임, 여가/문화/스포츠관련 모임,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 등 총 6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평균 1.24개의 활동을 하고 있었고, 친목모임에 대한 분포가 가장 많았고, 동창회/향우회, 종교모임, 여가/문화/스포츠관련 모임, 자원봉사, 정당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은퇴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 278)

구 분		빈도	백분율
연령 (M = 59.4)	45-49	7	2.5
	50-54	26	9.4
	55-59	89	32.0
	60-64	156	56.1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65	23.4
	중학교 졸업	52	18.7
	고등학교 졸업	100	36.0
	대학교 졸업 이상	61	21.9
자녀수 (M = 2.56)	한명 이하	23	8.3
	2~3명	220	79.1
	4명 이상	35	12.6
미혼자녀 유무	유	71	25.5
	무	207	74.5
사회활동 참여* (M = 1.24)	친목모임	159	57.2
	동창회/향우회 등	101	36.3
	종교모임	43	15.5
	여가/문화/스포츠관련	25	9.0
	자원봉사	12	4.3
	정당/시민단체	4	1.4
은퇴 전 고용형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9	60.8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34	12.2
	고용주(종업원 有)	34	12.2
	자영업	41	14.8
은퇴 동기	비자발	181	65.1
	자발	97	34.9
구 분		Mean	SD
건강만족도(범위 1 - 100)		54.17	28.37
주관적경제만족도(범위 1 - 100)		48.45	25.52
결혼만족도(범위 1 - 100)		73.24	19.64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범위 1 - 100)		75.85	18.29
은퇴 만족도(범위 1 - 5)		2.12	1.16
삶의 질(범위 1 - 100)		62.77	22.09

\* 사회활동참여는 중복응답

전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일을 한 비율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이 그 뒤를 이었고(14.8%), 다음으로 비상용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비율은 같게 나타났다(12.2%). 은퇴자의 은퇴 동기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65.1%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은퇴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 만족도는 54.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경제생활 만족도는 48.45점으로 비교적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각각 73.24점과 75.85점으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만족도의 경우 2.12점으로 은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질은 62.77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본인의 삶의 질을 중간 수준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2. 중고령 남성의 은퇴 경험 및 은퇴 후 삶의 질

### 1) 중고령 남성의 은퇴 경험

은퇴 동기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약 65%가 자신의 은퇴를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약 35%가 자발적 은퇴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은퇴 동기에 따른 구체적 은퇴 사유를 살펴보면 비자발적 은퇴자와 자발적 은퇴자 모두 “정년퇴직으로”,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혹은 “다른 일 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등을 주요 은퇴 사유로 꼽아 은퇴 동기별 은퇴 사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 사유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은퇴자에 따라 본인의 은퇴를 비자발적 혹은 자발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중고령 남성들이 은퇴 동기를 자발적인 것 혹은 비자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조사대상자의 은퇴동기에



대한 인식과 한국 중고령 남성들의 개인 및 가족, 사회적 관계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그들은 교육수준, 건강만족도에 따라 은퇴 동기를 다르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남성의 교육수준( $e^{.18} = .99, p < .10$ )이 높을수록, 건강만족도( $e^{.02} = .98, p < .01$ )가 낮을수록 은퇴 상황을 비자발적 은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은퇴 동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 = 278)

변수	B	SE B	Exp (B)
연령	-.01	.04	.99
교육수준	.18 <sup>†</sup>	.10	1.20
건강만족도	-.02**	.01	.98
주관적경제만족도	.00	.01	1.00
결혼만족도	.01	.01	1.01
자녀수	-.16	.15	.85
미혼자녀 유무	-.00	.32	1.00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01	.01	.99
사회활동 참여 수	-.11	.14	.90
Cox & Snell R <sup>2</sup>			.06
-2 Log Likelihood			342.16

\* 자발적 은퇴 '0'/비자발적 은퇴 '1'

<sup>†</sup>  $p < .10$ , \*\* $p < .01$

다음으로,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개인 및 가족, 사회적 관계 특성 변수, 그리고 은퇴동기가 한국 중고령 남성의 은퇴만족도의 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및 가족, 사회적 관계, 은퇴 관련 변수 중 개인 특성 변수인 교육수준, 건강만족도, 주관적경제만족도와 은퇴 특성 변수인 은퇴 동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고

령 남성의 교육수준 ( $\beta = .15, p < .01$ )이 높을수록 은퇴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beta = .14, p < .05$ )가 높을수록, 그리고 주관적 경제만족도( $\beta = .28, p < .001$ )가 높을수록 은퇴를 만족스러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은퇴동기( $\beta = -.18, p < .01$ )의 경우 자발적 은퇴로 지각한 중고령 남성의 은퇴만족도가 비자발적 은퇴로 지각한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연령과 사회활동 참여 수가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중고령 남성의 은퇴 후 삶의 질

은퇴 후 삶의 질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중고령 남성의 개인 및 가족 관련 변수만이 중고령 남성의 은퇴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 후 삶의 질의 64%를 설명하고 있었다. 개인 특성 변인으로는, 중고령 남성의 연령( $\beta = .09, p < .05$ )이 증가할수록, 건강만족도( $\beta = .26, p < .001$ )가 높을수록, 주관적경제만족도( $\beta = .37, p < .001$ )가 높을수록 은퇴 후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 전 직업 특성은 은퇴 후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 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결혼만족도( $\beta = .22, p < .001$ )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beta = .19, p < .001$ )가 높을수록 은퇴 후 삶의 질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 및 은퇴 관련 변수는 은퇴 후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중고령 남성의 은퇴 경험 및 은퇴 후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고령 남성의 개인 및 가족, 사회적 관계, 은퇴 관련 변수들 중 은퇴 후 삶의 질과 관련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고령자 패널 1차(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완전 은퇴를 선택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45세 이상 64세 이하의 남성 278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로지스틱 및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고령 남성들은 자신의 은퇴를 자발적 은퇴보다 비자발적 은퇴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들의 은퇴만족도는 평균 2.12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은퇴 후 삶의 질은 62.77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영역에서 물러나는 은퇴 자체에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은퇴 이후 삶의 질을 보통 수준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어 중고령 남성의 이른 은퇴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들의 삶의 질에서 일 역할 상실감을 상쇄해 주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약 65%의 남성이 자신의 은퇴를 비자발적인 것으로 응답하여 비자발적 은퇴의 비율이 높은 결과는 한국남성의 경우 비자발적인 근로중단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한경혜, 2008)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들의 은퇴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퇴를 자발적인 것으로 응답한 사람과 비자발적인 것으로 응답한 사람간의 은퇴사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접적 은퇴 사유와 관계없이 개인의 인식에 따라 은퇴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것으로 다르게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은퇴 동기에 대한 인식과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사회관계적 특성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과 건강만족도에 따라 은퇴 동기를 다르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만족도가 낮을수록 은퇴를 비자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표 3〉 중고령 남성의 변인별 은퇴만족도 및 은퇴 후 삶의 질

(N = 278)

변인	은퇴만족도			은퇴 후 삶의 질		
	B	SE B	$\beta$	B	SE B	$\beta$
연령	.03	.02	.09 <sup>†</sup>	.50	.22	.09*
교육수준	.21	0.9	.15**	.04	1.21	.00
건강만족도	.01	.00	.14*	.20	.04	.26***
주관적경제만족도	.01	.00	.28***	.32	.05	.37***
은퇴전 근로 형태 <sup>a</sup>						
비상용직 임금 근로자	.13	.18	.06	-1.38	2.47	-.03
고용주	.34	.23	.09	2.57	3.24	.04
자영업	.19	.23	.05	-3.29	3.23	-.05
결혼만족도	-.00	.00	-.05	.24	.06	.22***
자녀 수	-.09	.07	-.07	-.27	.97	-.01
미혼자녀 유무 <sup>b</sup>	-.19	.14	-.07	-.72	2.00	-.0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00	.00	.01	.22	.06	.19***
사회활동 참여 수	.12	.06	.12 <sup>†</sup>	.33	.87	.02
은퇴 동기 <sup>c</sup>	-.43	.13	-.18**	-1.52	1.80	-.03
은퇴만족도	-	-	-	.14	.87	.01
상수		-.24			-25.31 <sup>†</sup>	
R <sup>2</sup>		.35			.64	

<sup>a</sup>기준: 상용직 임금 근로자, <sup>b</sup>없음 '0' / 있음 '1', <sup>c</sup>자발적 퇴직 '0'/비자발적 퇴직 '1'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Willinger(1993)의 대졸 이상의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남성일수록 강한 남성의식, 즉 일에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김태현·김양호, 2003에서 재인용)와 비자발적인 은퇴일수록 역할 상실감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성미애·옥선화, 2004) 등과 연결해서 앞으로 은퇴를 경험하게 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학력수준과 일에서의 정체감 등이 그들의 은퇴 후 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만족도의 경우, 건강만족도가 낮을수록 비자발적인 은퇴로 인식하였는데, 최근 남성들이 여성에게 취업비율에서 첫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고령 세대에서도 밀리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연로와 심신장애로 일자리에서 이탈한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연결하여(내일신문, 2011. 6. 17), 건강수준이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주목하게 한다.

셋째, 한국 중고령 남성의 은퇴만족도는 개인 특성 변인과 은퇴 관련 변인에 의해 설명된다. 은퇴자의 개인 특성 변수인 교육수준과 주관적 경제만족도와 은퇴 관련 변수인 은퇴 동기만이 은퇴만족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를 만족스러운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 후의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가 은퇴자들의 은퇴 후 삶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강인, 2007; 배문조·전귀연, 2004)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은퇴 동기의 경우 자발적 은퇴로 지각한 중고령 남성의 은퇴만족도가 비자발적 은퇴로 지각한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동기별 은퇴 사유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중고령 남성의 은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전 중고령 남성의 은퇴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한 방안이 은

퇴 준비 교육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고령 남성들의 은퇴 후 삶의 질에는 중고령 남성의 개인 및 가족 관련 변수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성미애·최새은, 2010; 강인, 2007; 배문조·전귀연, 2004; 한혜경, 2002)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중고령 남성들의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 후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만족도와 주관적경제만족도는 중고령 남성의 은퇴만족도와 은퇴 후 삶의 질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나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 및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령 남성의 은퇴 경험이 그들의 은퇴 후 삶의 질과 관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 중고령 남성의 은퇴 동기 및 은퇴 만족도와 같은 은퇴 관련 변수는 은퇴 후 삶의 질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의 자발성 여부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성미애·최새은(2010)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중고령 남성이 일영역에서의 역할 상실을 경험하더라도 개인 및 가족생활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경험한다면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수준의 삶을 향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남성의 가족생활에의 참여와 건강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돕는 다양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1차년도 자료만을 이용한 횡단연구로 은퇴 후의 개인 및 가족, 사회적 관계 변수와 은퇴 관련 변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고령 남성들의 은퇴만족도 및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생활의 특성상 중고령 남성들이 경험하는 생활 전반에서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은퇴 과정과 은퇴 후 경과 기간 등의 시간 변수를 포함한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최근 은퇴에 대한 개념 정의가 경제활동 참가여부, 노동시간이나 임금 수준, 주요 직업 중단, 일정연령 도달 등의 전통적 개념에 해당자의 주관적 평가까지 포함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은퇴 제도는 기업의 강제퇴직(약 55세), 공적 연금의 정년(60세→65세), 그리고 실질적인 은퇴(68세) 연령 간에 간극이 넓고 단절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방하남·신동균·김동헌·신현구, 2005),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로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 은퇴 및 조기퇴직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구직 의사가 있는 잠정적 은퇴, 비은퇴자 등도 포함시켜 보다 세부적으로 집단을 세분화하고 이를 통하여 집단 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개인 및 가족적 특성, 사회적 특성 등이 은퇴 만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은퇴동기를 자발성 여부뿐만 아니라 본 것은 직업몰입도, 직업중심성 등 직업적 특성이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chmidt & Lee, 2008) 등을 고려할 때 한계점이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된 것 역시 보다 세밀한 고찰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직업적 특성 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은퇴 후 생활에 완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하위영역별로 보다 세분화된 변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한국 중고령 남성의 은퇴만족도와 은퇴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은퇴 전이기 교육, 은퇴자 및 은퇴자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강인(2007). 은퇴 남성 노인의 어려움과 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복합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259-283.
- 2) 권문일(1996). 노인의 퇴직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기홍·임언·이정표(2008).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계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 김지경(2004).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원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리서치 브리프, 8, 1-10.
- 5) 김지경(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 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55-76.
- 6) 김태현·김양호(2003). 중년남성의 남성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 7) 방하남·신동균·김동헌·신현구(2005).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8)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9) 성미애(1999).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0) 성미애·옥선화(2002).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40(1), 1-21.
- 11) 성미애·옥선화(2004). 여성 퇴직자의 퇴직 후 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16(2),

- 55-91.
- 12) 성미애·최새은(2010). 남녀 은퇴자의 은퇴전 이 경험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젠더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13-25.
  - 13) 신준섭·이영분(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41-269.
  - 14) 신현구(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81-93.
  - 15) 신화용·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 16) 안기선(2011). 중고령 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노동패널 4차년도와 11차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안병철·임인숙·정기선·이장원(2001). *경제위기와 가족*. 서울: 생각의 나무.
  - 18) 이숙현(2006). 생산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33-150.
  - 19) 이종희(2001).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산정논총*, 2, 409-442.
  - 20) 윤현숙·이미진(2006).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적 연구: 노인의 성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8(4), 197-217.
  - 21) 조성희(1999).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3(1), 139-166.
  - 22) 조원지·한경혜(2001). 직업 역할 및 아버지 역할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20.
  - 23) 지연경·조병은(1991). 내외 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24) 한경혜(2008).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 경험의 남녀차이. *한국사회학*, 42(3), 86-118.
  - 25) 한혜경(2002). 조기퇴직자의 생활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일상생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287-310.
  - 26) 한희자·강은실(2001). 은퇴자들의 은퇴 후 삶의 상태변화. *정신간호학회지*, 10(2), 203-219.
  - 27) *내일신문*(2011. 6. 17), '남성노동력, 고용시장에서 무기력'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um=609933&sid=E&tid=9>
  - 28) *조선일보*(2010. 9. 3) '마(魔)의 10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3/201009030014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3/2010090300144.html)
  - 29) *조선일보*(2010. 1. 8) '베이비붐 세대 2010년 쇼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08/201001080007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08/2010010800073.html)
  - 30) *폴리뉴스*(2010, 10. 1). 고령자 고용률 급격히 떨어져, OECD국가들은 반대로 증가추세.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401&num=113662>
  - 31) Atchley, R. C.(1989).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Gerontologist*, 29, 183-190.
  - 32) Bradbury, T. N., Cohan, C. L. & Karney B. R.(1998).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3) Gall, T. L., Evans, D. R., Howard, J.(1997). The retirement adjustment process: changes in the well-being of male retirees across tim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 Sci Soc Sci*. 52B. 110-117.
  - 34) Gallo, W., Bradley, E. H., Dubin, J. A., & Jones, R. N.(2006). The persistence of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workers who experience involuntary job loss. *Journal of*

- Gerontology, 61B, 221-228.
- 35) Pinquart M., & Schindler, I.(2007).Change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A latent -class approach. Psychology and Aging, 22, 442-455.
- 36) Schmidt, J., & Lee, K.(2008). Voluntary retirement and organizational turnover intentions: The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work and non-work commitment construct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2, 297-309.
- 37) Szinovacz, M. E., & Davey, A.(2005). Predictors of perceptions of involuntary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45, 36-47.

- 투 고 일 : 2011년 9월 27일
- 심 사 일 : 2011년 10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11월 14일